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아리코 재팬, 고객 정보 대량 누출

- AIG 산하 생명보험 사업부인 아리코 재팬(アlicoジャパン)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지불한 자사 고객들의 정보가 최근 외부에 대량 유출된 징후가 있다고 발표해 보험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음.
 - 신용카드 부정사용(고객 본인도 모르는 상품 구입 등)과 같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만 천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.
 - 아리코 재팬 자체 조사에 따르면,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보고된 고객은 공통적으로 2002년 7월~2008년 5월까지 통신 판매로 보험에 가입하고,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지불했으며, 보험증권번호 첫 번째 숫자가 2나 3이라는 공통점이 있음.
 - 아리코 재팬은 현재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 계약은 약 74만 건이며 이 중 최대 11만 건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고객 이름과 카드번호, 유효기간 등이 유출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, 정확한 유출 경로 및 피해 규모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.

- 일본 금융청은 아리코 재팬에 대해 엄정한 자체 조사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, 고객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개선 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함.
 - 금융청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아리코 재팬에 피해 확대 방지 및 내부관리 문제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, 정보 유출 방지 체제에 허점이 발견되면 업무개선 등 행정 처분 명령을 검토하기로 함.
 - 업계에서는 아리코 재팬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 이탈이 불가피해져 생명보험 업계 6위의 현재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, 진행 중인 아리코 재팬 매각 협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.

(마이니치·시사통신, 7/25: Business I, 7/26)